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2024년 3월 10일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알게 하옵소서

얼음 깨기

‘봄’

교회행사

길었던 겨울이 물러난 자리에 봄소식을 알리는 매화와 산수유가 찾아왔습니다.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봄꽃처럼 겨울내 웅크렸던 우리들도 기지개를 펴고 즐거운 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봄’ 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2. ‘봄’ 과 관련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장소는?

3월

- 3일 목장 모임 시작
- 17일 성례식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
- 24일 종려 주일
(성찬식)
- 25-30일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31일 부활 주일

경배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후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1. **목장 모임 시작** 3월 3일 주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함께 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 하늘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2. **성례식** 성례식을(3월 17일) 위한 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청장년 교육 일정 : 세례 / 입교 / 학습
- 1회차 : 3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2회차 : 3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청소년 교육 일정 : 세례 / 입교 / 학습
- 1회차 :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 2회차 : 3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유아세례 교육 일정 : 3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선교

[박문수 선교사]

태국

1. 선교사들과 교역자들의 영적 지혜와 강건함을 위하여
2. 월드 교회와 선교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3. 예수원과 월드미션 센터를 통해 인재가 양성되도록

한문장 큰 울림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 빌리 그레이엄 -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부자가 떠난 후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가르침이 이어진다. 그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머뭇거리다 이내 포기하고 돌아간 모습을 통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신다.

부와 하나님나라(23-27절)

먼저 살펴볼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예언자적 전통은 부가 주는 위험과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경고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언자 전통 위에 서서 재물의 파괴적인 위험에 대해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선 집중하라는 의미이다.

주님은 힘없이 돌아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23절)”라고 말씀하신다. 이에 제자들은 더 놀란다. 주님은 부자가 제자의 삶을 포기한 이유를 “재물이 많았기” 때문임을 암시하셨다. 물론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자신을 따르려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의 가치가 자기 재물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제자는 이 가치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둔 것이다.

[나눔]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나 자신에게 이어서 재물의 가치와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건가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놀란다.” 당시 부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찰막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신다.

낙타와 바늘귀를 대조한 것은 사실상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대조다. 당시 가축 중에서 가장 큰 낙타가 구멍으로 가장 좁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상상하게 한다. 이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부자에게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은 어렵다.

제자들은 더욱 충격을 받는다. “매우 놀라(26절)”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는 것이다. 이는 제자들이 그 부자를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이를 간파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응시하시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라고 말씀하신다. 구원은 사람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날 수 있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베드로의 반응과 주님의 가르침(28-31절)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반응한다.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과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에 비해 자기들은(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다. 이 반응에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현세와 내세에 상급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가르치신다.(29-31절)

31절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로 번역했으나 9장 35절에서처럼 “첫째와 꼴찌”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첫째란 부와 권력 등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을, 꼴찌는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들이 부자처럼 예수님을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는 세대에서는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재산과 가족까지도 버린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꼴찌지만, 오는 세대에서는 첫째가 될 것이다.

[나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와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가 각각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눔

주일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 마가복음 10:23-31]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